

# 대규모 폐기물 불법 야적 수년째 방치

광주 광산구 수집 운반 업체  
2500여㎡ 부지 5m 높이 쌓아둬  
전산 입력 등 이력 관리도 안해  
광산구 바주기 단속 유착 의혹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최근 부지 내 절반 면적에 약 5m 높이로 불법 폐기물을 야적해 놓고 있다.

광주 광산구 관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대규모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영업장에 수년째 방치하면서 환경 오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전국 조직망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광산구는 그동안 사실상 '바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업체에선 해당 업체와의 유착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D업체는 2005년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 및 배출시설 폐기물을 수거한 뒤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정부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에 대한 이력을 전산으로 입력해야 한다.

D업체는 그러나 '올바로 시스템'에 전혀 입력하지 않은 출처 불명의 불법 폐기물을 영업장인 광산구 수남길 77번지 2500여㎡ 부지에 대량으로 야적해 놓은 등 방치하고 있다.

해당 부지 절반의 면적에 약 5m 높이로 야적된

불법 폐기물은 대략 3000루베 정도로 추정되며, 100여평 규모의 창고 건물 내에도 폐비닐 등 생활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D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만큼 수거한 폐기물은 곧바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대량으로 야적한 업무 행위는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따르면 위탁받은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야적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강화돼 올 5월부터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산구는 해당 폐기물의 야적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의혹이 제

기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엔 폐기물보관기준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업체에선 광산구가 해당 업체에 되레 면죄부를 주는 등 바주기식 단속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불법야적 사실을 수차례 제보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해당 업체 사장은 명의를 대여한 경우로 실질적인 운영자가 광산구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광주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야적된 폐기물이 올바로 시스템에 누락된 불법 폐기물로 파악됐다"며 "법 규정을 위반한 만큼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승걸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 자동차 부품기업 참여 온라인 채용 박람회

광주그린카진흥원 14~25일 2주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함께하는 2020온라인 채용박람회 참가 광주그린카진흥원 주관으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열린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관내 자동차부품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관례에서 벗어나 영상매칭 플랫폼 앱을 통해 광주지역 최초로 이력서 접수부터 심층 면접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온라인 채용박람회 기간 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기업 채용정보도 제공한다. 다양한 이벤트관과 채용 지원제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광주그린카진흥원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내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참여 기업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인크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9월 토지·주택 정기본 재산세 1361억 부과

임대로 인하 착한 임대인 12월까지 감면

광주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본 재산세 1361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40억, 서구 318억, 남구 173억, 북구 283억, 광산구 447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9월 정기본 과세 대상은 토지 및 20만원 초과 주택(1/2)이며 납기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5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는 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여 준 착한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올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3개월 이상 약정한 경우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되며, 3개월 초과 시에는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관 역사자료 수집

유은총동문회 및 동문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2021년 5월 26일에 100주년 기념관 개관에 맞춰 14만 동문들의 소중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00년사 연감 제작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은가족 및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 및 교육 발간 책자

- 학교 교사(校史), 학교 요람, 학교연혁지, 교육계획서, 학교문집, 교육활동철
- 새교육 등 교육관련 각종 잡지, 학교 신문, 교지, 학교 발행 간행물 등
-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부교재 등

### 기록자료

- 사진, 회화, 앨범, 영상자료,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사진 및 자료
- 학교 배경의 개인 기념 사진이나 그림, 졸업 앨범 및 우승 트로피, 메달, 상장
-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 시험지 및 답안지, 성적표, 통지표, 학교일지 등

### 학교 물품과 서류

- 졸업장, 수료증, 급여 봉투, 고지서, 영수증
- 학교 상징물, 교기, 교가, 교훈, 배지, 상장함, 깃발
- 각종 교구 및 기자재, 타자기, 초기형 컴퓨터, 환등기 등
- 운동회 용품, 호루라기, 매스게임 물품, 모의 수류탄 등

### 학생물품

- 교복, 체육복, 교련복, 이름표, 모자, 가방, 주산, 학생증, 교표, 도서관 대출증
- 도시락, 일기, 방학생활, 학급 문집, 동아리 문집 등
- 기타 자료 등

### 접수처

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상고) 행정실 062)670-4512,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32

광주동성고(광주상고), 광주여상고, 광주동성중, 광주동성여중

## 학교법인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



## "함께 이겨내요" ...수재민에 따뜻한 나눔

지역 SNS 모임 '민주정권계승방' 광주시에 전기포스트 100개 전달

지역 SNS 모임 '민주정권계승방'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동·남구 수재민을 위해 지난 11일 다용도 전기포스트 100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사진>

150여명의 국내외 회원으로 구성된 민주정권계승방은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문 민주정권계승방 대표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성금으로 마련한 물품이 수재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중호 행정부시장은 "마음을 담은 뜻깊은 나눔이 수재민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라며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사회의 연대정신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환경공단 취약계층 5가구 주거환경 개선

쓰레기 치우고 화재·전기시설 점검 보수 사회공헌기금 활용 청소·생활용품 전달

광주환경공단이 지난 12일 광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5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사진>

자원봉사자들은 대상가구 집안의 각종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정돈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광주환경공단 기술봉사단은 노후시설물 안전점검과 화재 및 누전 위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했다.

광주환경공단은 또 모은 임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100만원 상당의 여성위생용품, 청소용품, 생활용품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일환으로 소외 이웃을 위한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